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후보자 명단

*** 다음은 확정자 명단이 아니며, 추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예정**

소속	성명	주요 공적
식품의약품안전처	**김광제**	마약류 유통관리, 재활의 중요성 적극 홍보, 코로나 백신·치료제·검사키트 정보 등 대국민 신속 전달 통해 기관 신뢰도 향상
식품의약품안전처	**김미경**	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추진으로 신종·불법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를 사용하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권익 강화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김미라**	성과관리 주관 및 식약처 최초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등 식의약 안전기술 진흥체계 기반 마련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김민수**	식품모방 화장품 금지 추진, 의약품 회수체계 정비, 품목갱신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의료제품 분야 국민 안전확보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김보영**	수입식품 분야 제도 개선과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영업자의 안전 의식 고취 및 고객만족도 제고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김정아**	식품·의약품 범죄 수사를 적극 수행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통한 국민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문정석**	식약처 주요 법안의 제·개정 지원 및 온라인 정책 홍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박대용**	HACCP 업체 대상 철저한 평가관리, PLS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, 현장기술 지도 등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박철우**	식품·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추진 및 공직윤리, 자체감사 업무 수행을 통해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확립
식품의약품안전처	**서정원**	항생제, 항암제의 안전성·유효성 심사 및 제네릭의약품 허가 후 변경관리 고시 개정 기술지원 등으로 의약품 안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손상혁**	수입·유통식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검사로 부적합식품 유통의 차단 업무 수행하여 시험검사업무 발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신춘식**	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마련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및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유범열**	온라인상 국민생활 밀접 식품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점검 및 온라인 기획감시 수행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이덕수**	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로 직원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 및 수입식품 관련 선제적 관리 통한 소비자 안심 확보

소속	성명	주요 공적
식품의약품안전처	**이수엽**	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식품 이물 신고 시 조사·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확보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이주향**	자체 채용, 징계 및 소송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수행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이희성**	최소 잔여형 주사기 신속 제품화 지원 및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방역물품 수급 안정화를 통해 국가방역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정수경**	의약품 품질고도화 도입을 독려하여 의약품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우수 품질 의약품 생산 지원 통한 고품질 의약품 공급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정진수**	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의 수입 전(前), 통관,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조성연**	전국 시·군·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소규모 급식소 등록·운영하여 식품 안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차지훈**	혁신의료기기의 집중 규제 상담, 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 접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방안 마련으로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최갑선**	식중독 예방 관리, 수입식품 안전관리, HACCP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적극 수행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홍 진**	국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허가, 이상 반응 등 주요 현안의 안전성 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·분석하여 식의약 안전에 기여
식품의약품안전처	**홍혜경**	코로나19 의료기기 현장점검·긴급대응으로 안정적 수급·관리 및 의료기기 사후감시 강화 통한 불법 의료기기 유통 근절
식품의약품안전처	**황상연**	의료기기 허가체계 일관성 제고 및 민원인 안내서 제정 등 합리적인 기준 제시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